

<div data-bbox="204 356 566 443"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60 465 510 510" data-label="Text"> <p>2012. 1. 18.</p> </div>	<div data-bbox="643 248 764 36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27 248 1283 358" data-label="Text"> <p>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p> </div>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최형표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양형위원회는 (주)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 11. 14. ~ 12. 9.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양형기준 및 양형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① 개 요

-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약 9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조사 실시
-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양형은 법정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당해 사안에 적합한 양형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

② 강간과 살인에 대한 중대성 인식 차이

- 현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가 동일하게 설정(9년 ~ 13년)되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것이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
- 일반 국민은 ‘도가니 사건’ 등을 거치면서 성범죄가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전문가들은 살인죄가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③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

- 일반 국민은 전문가보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하

여 형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데 반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의 반영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

④ 성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

- 살인, 뇌물, 위증범죄 등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경우, 전문가들이 다수의견에 집중되는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다소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별다른 인식의 차이가 없었음

⑤ 향후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 3기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범죄군에 대하여 최근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변호사법위반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환경범죄'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⑥ 향후 계획

- 2012. 1. 30.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예정
- 향후 양형기준 대상범죄 선정,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과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

1 설문조사 개요

● 목적

- 일반인과 전문가에 대한 양형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향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등에 반영하기 위함

● 설문조사 의뢰 기관

- 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

● 조사방법

- 일반인 : 조사요원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1,000명의 일반 국민을 상대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 전문가 :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를 상대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시행 ⇒ 총 908명이 설문에 응답함
- 구체적 사례에 대한 양형을 묻는 설문에 있어서, 법정형, 현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범감정이나 범의식에 비추어 당해 사안에 가장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 묻는 방식으로 실시

2 강간과 살인에 대한 중대성 인식 차이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상 <사례 1>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범죄 유형, <사례 2>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각각 권고형량범위는 9년 ~ 13년으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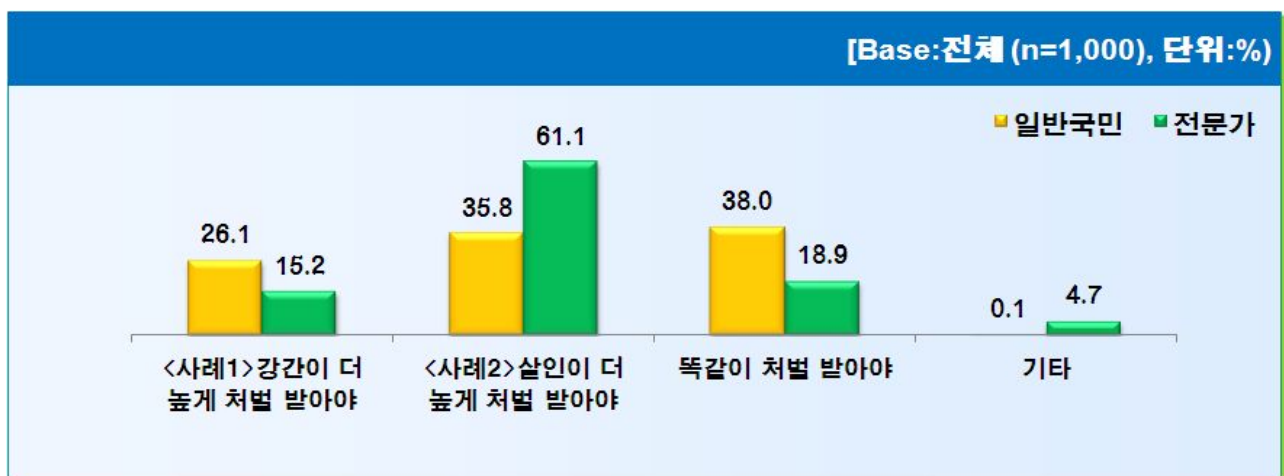
< 사례 1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주위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여, 12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여, 10세)를 유인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 사례 2 >

피고인은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화김에 칼로 피해자를 3회 찔러 살해하였다.

- 위 2가지 사례 중 어느 사안이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일반 국민의 경우, 최근 ‘도가니 사건’ 등을 통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범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의 경우, 살인범죄가 성범죄보다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로 조사되어 일반 국민과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③ 성범죄와 관련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양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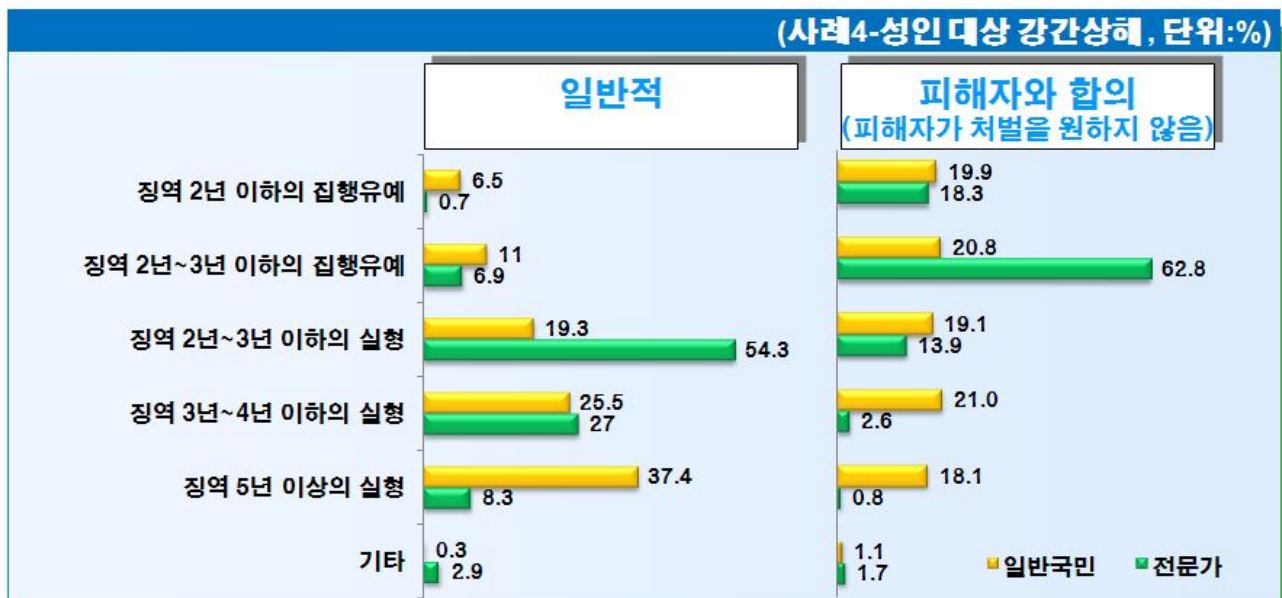
1. 성인 대상 강간상해

● 사안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다.

● 설문조사 결과



● 분석 결과

- 평소 안면이 있는 성인간의 강간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전문가들에 비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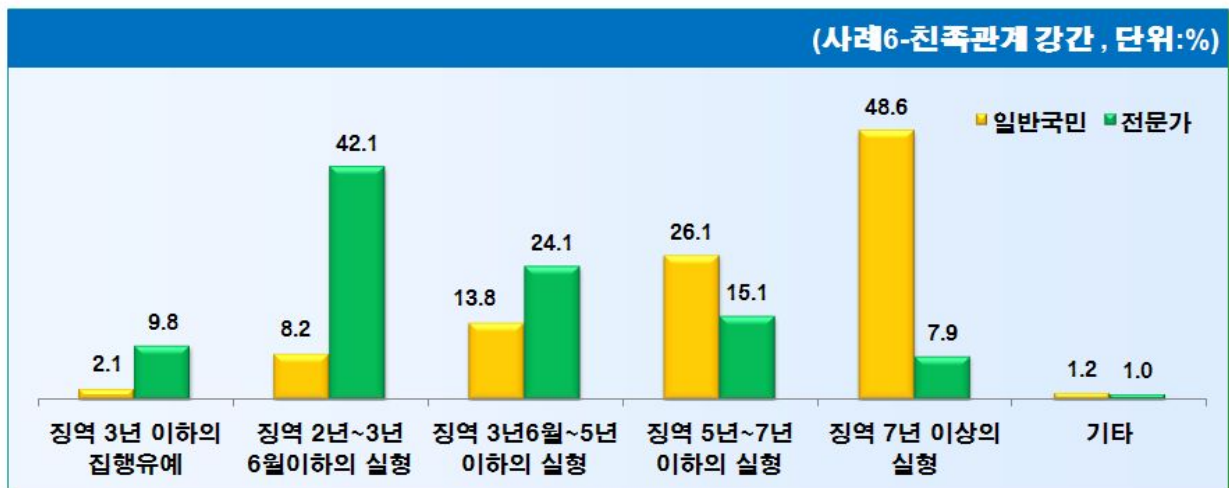
-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전문가들은 집행유예가 압도적으로 다수였으나, 일반 국민은 합의되더라도 여전히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함

2. 친족관계 강간

● 사안

피고인(40대)은 피해자(여, 15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다툼 후 일시적으로 집을 나가버려 잠시 피해자와 단둘이 살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몰래 수면제를 탄 오렌지 주스를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기운에 쓰러진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의붓딸을 1회 간음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 분석 결과

- 일반 국민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압도적으로 다수 의견인 데 비하여, 전문가들은 징역 2년 ~ 3년 6월 이하 실형이 다수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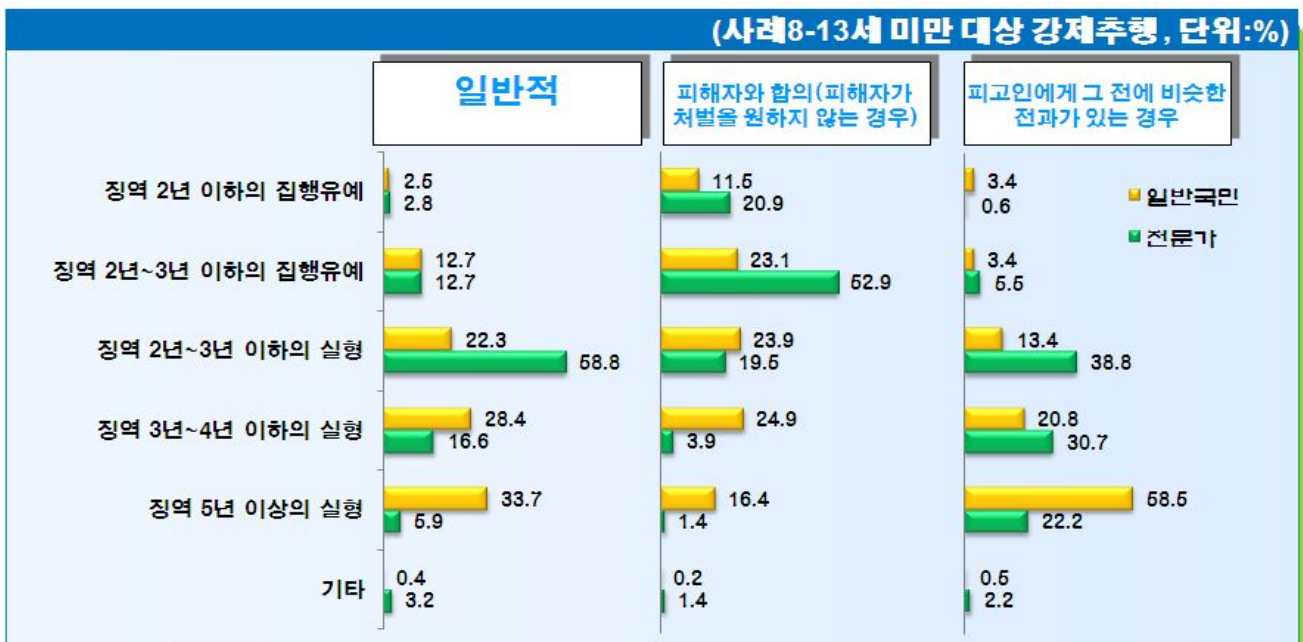
-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선고 형량에 대한 의견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친족관계 성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현저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3.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 사안

피고인(30대 후반)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채팅 중 피해자(여, 12세)에게 또래 여자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자신을 또래 친구로 속인 후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나온 피해자에게 “친구 만나러 왔느냐, 타라”로 말하여 안심시킨 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무서워 반항을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비슷한 전과가 없다.

● 설문조사 결과



● 분석 결과

- 일반 국민은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강제추행이더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보

여 전문가들과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전문가들은 집행유예가 압도적으로 다수이나, 일반 국민은 합의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약 65%를 차지할 만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임

4 성범죄 아닌 범죄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양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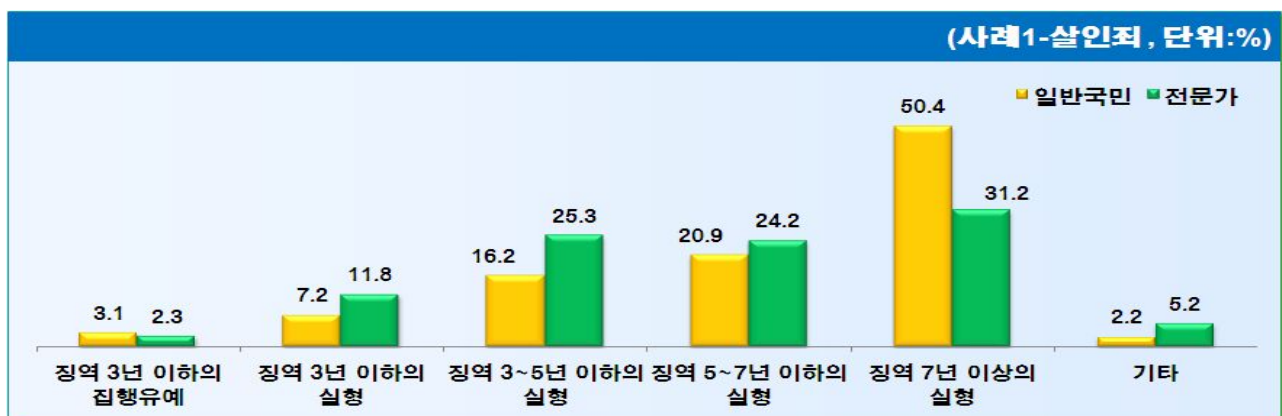
1. 살인

● 사안

피고인(34세)은 고아로 양부모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로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결혼 후 생활고 등이 겹치면서 불화가 더욱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생후 8개월 된 피해자인 딸이 시끄럽게 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주거지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결혼 전 동거하던 남자와 사이에 태어난 생후 4개월 된 친딸을 사망하게 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친딸을 2차례나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임신 중이고,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남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 결과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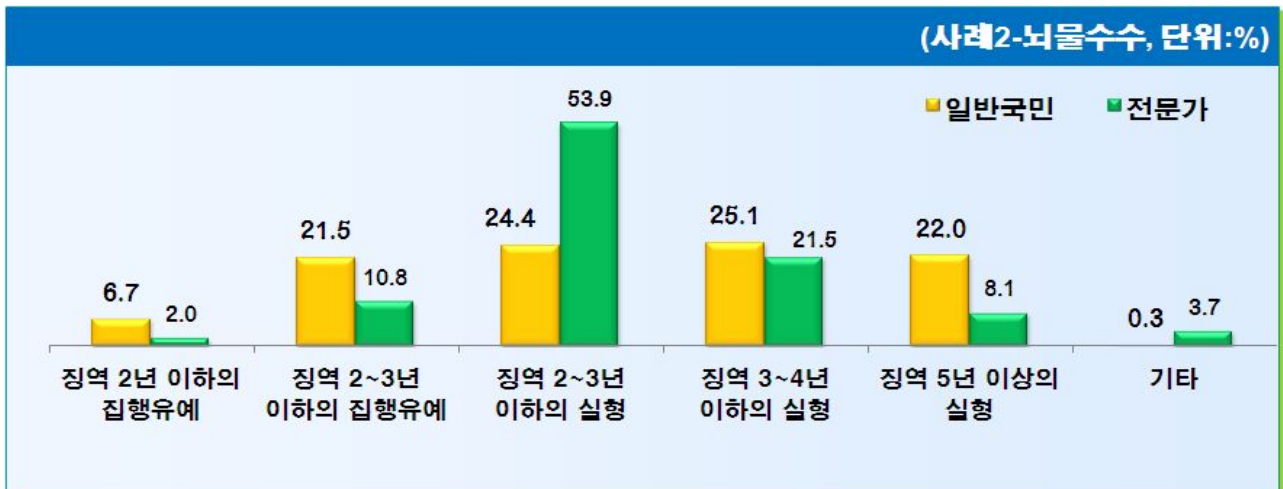
- 일반 국민 중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점은 제외하고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별다른 인식의 차이를 찾기 어려움

2. 뇌물수수 범죄

● 사안

피고인은 A경찰서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데, 관할 구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단속되었을 경우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15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은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전과만 있었다.

● 설문조사 결과



● 분석 결과

- 전문가들은 징역 2~3년 이하 실형이 압도적 다수 의견인 데 비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 이상의 실형까지 다양한 의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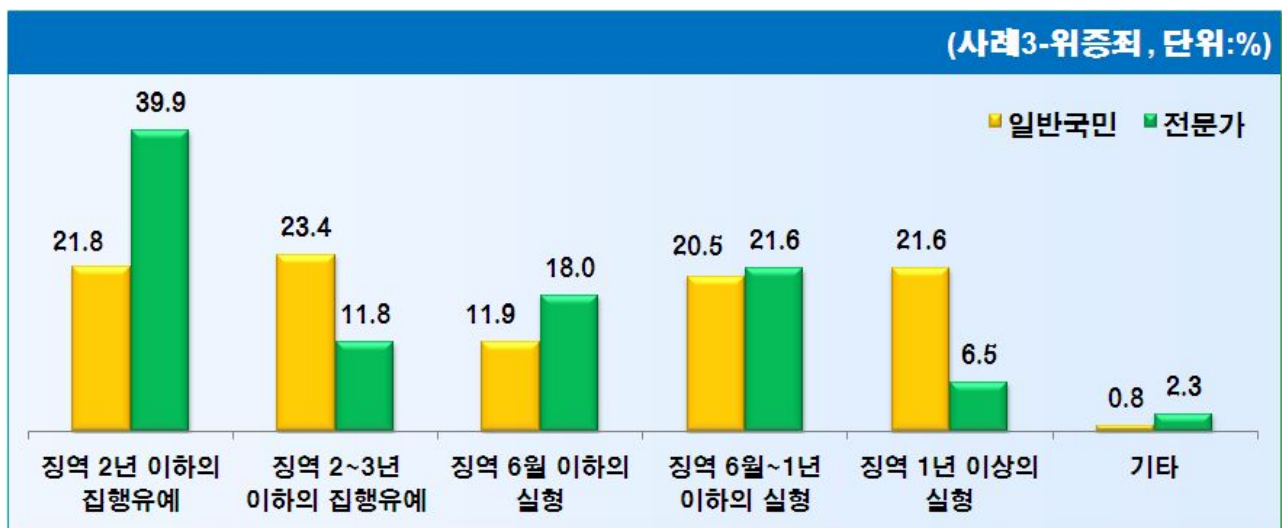
3. 위증

● 사안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A를 태우고 가던 중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로부터 부탁을 받고, 검사의 질문에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운전 중이 아니라 택시에서 내려서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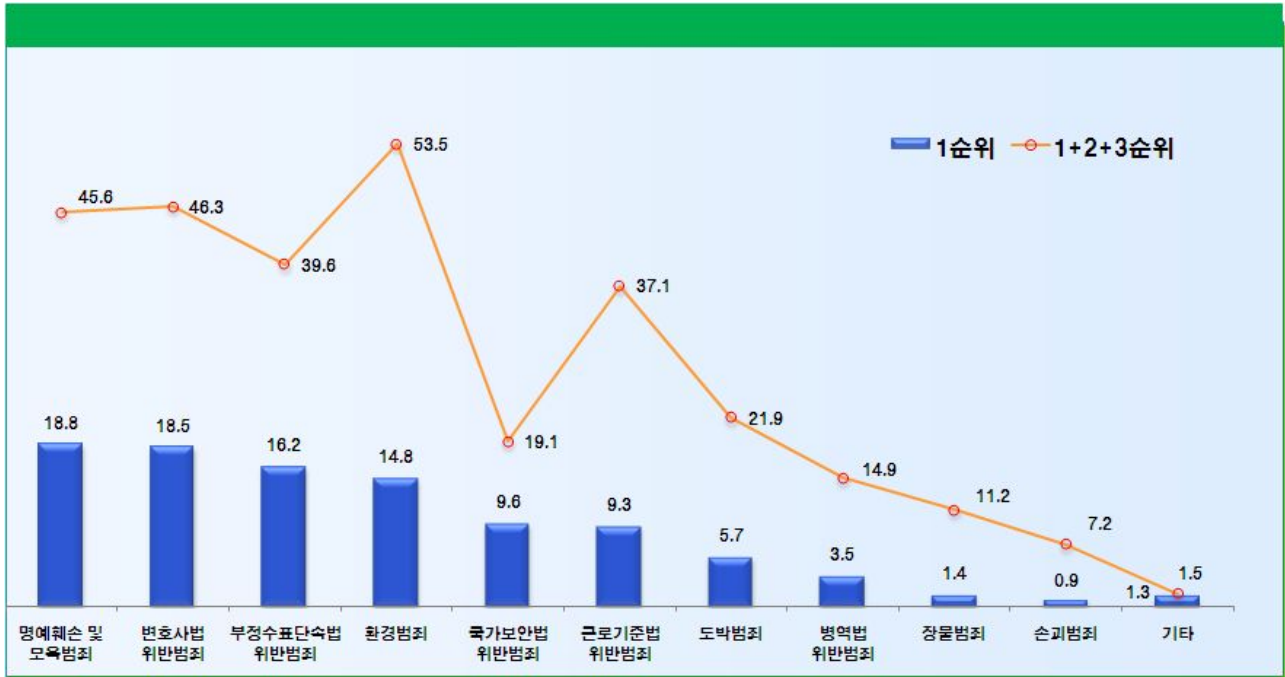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의 비하여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다소 많은 의견을 보인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별다른 인식의 차이가 없음

⑤ 향후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 3기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 양형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범죄군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변호사법위반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환경범죄, 국가보안법위반범죄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6] 향후 계획

- 2012. 1. 30.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예정
-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방화, 공갈, 선거, 조세범죄)과 그 후 추가적으로 설정할 양형기준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예정